

# 혐오와 절합하고 경합하는 정동들

: 정동의 인클로저를 넘어서 혐오에 대해 사유하기

손희정\*

##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정동의 관리와 인클로저
3. 우리 시대의 혐오: 혐오하는 스톱의 등장
4. 혐오의 계열 하나: 주목경제, 조리돌림, 그리고 수치심
5. 혐오의 계열 둘: 행복 산업과 한없이 투명한 재미
6.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자본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정동이 관리되는 시대다. 이 과정에서 정동은 변별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런 인식론은 “마음과 세상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꾸준한 프로젝트”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울증을 병리화하고 행복을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자본에 복무하도록 하는 ‘행복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정동의 관리 과정을 ‘정동의 인클로저’라고 명명한다. 이렇게 이름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이것이 정동에 ‘테두리’를 쳐서 공간화하는 상상력으로부터 가능해지고, 둘째, 이런 ‘테두리치기’가 명백하게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기획 안에서 진행되었으며, 셋째, 그 효과가 인간들 사이의 ‘감정적 공유지’를 해체하고 ‘원자화된 개인’을 자연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동을 자원화, 자본화하는 정동의 인클로저는 1960년대 말 자본주의의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등장

\*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연구원

한 ‘새로운 시초축적’의 한 방법론이었다. 정동의 인클로저를 넘어서 혐오와 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혐오를 다양한 정동들의 복합체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혐오는 ‘모멸’의 문화에서 자양분을 얻고, ‘즐거움’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된 시대에 ‘재미’라는 형식을 빌어 타인에게 ‘수치심’을 강요함으로써 그 효과를 지속시킨다. 이렇게 접근할 때에야 정동을 이론화하는 작업들이 정동의 관리에 복무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핵심어 : 정동, 정동의 관리, 정동의 인클로저, 혐오, 수치심, 모멸감, 행복, 행복 산업, 재미, 주목경제

## 1. 들어가는 말

‘혐오의 시대’를 산다고들 말한다. 현실에서 차별과 배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혐오가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는 탓에 각종 언론들뿐만 아니라 학회를 비롯 각종 학술 잡지 및 단행본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혐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덕분에 최근 담론 지형을 ‘기승전혐오’로 묘사해도 무방할 정도다. 혐오는 이미지로 매개되는 권력 관계이며, 이는 현실세계에서 배제와 억압, 폭력이라는 명백한 실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지한 적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담론적이고 이론적인 개입들은 유의미하다.

그러나 과연 혐오란 무엇일까? 한 시대를 포착하고 규정할 수 있는 정동이라고 말해지는 혐오는 어떻게 변별되고 규정될 수 있을까? 혐오와 증오, 분노, 불안, 두려움, 시기/질투, 짜증 등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일까?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정동을 행복,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등으로 구분했던 다윈의 선구적인 작업<sup>1)</sup>에서부터 여기에 질투, 수치, 당

1) 찰스 다윈, 김홍표 역,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 지만지, 2014.

황, 경멸 등을 추가한 스투어트 월튼의 작업<sup>2)</sup>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감정을 다뤄온 다양한 연구들은 인간 정동을 구분하고 변별할 수 있는 것으로 상상하고 논해왔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아웃>(2015)은 이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정동들에 인격을 부여하고 이미지화한다. 인격화된 기쁨이(행복), 슬픔이(슬픔), 까칠이(혐오), 버럭이(분노), 소심이(두려움)는 모든 정동이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데 있어 각자의 의미와 역할을 가지며, 서로가 서로를 상관적으로 구성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데 이런 인격화는 정동들을 서로 구분되는 독립적 개체로 묘사함과 동시에 뇌에서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위치가 있다는 상상력을 강화한다. 정동은 그렇게 구획되어 공간화된다. <인사이드아웃>의 전세계적인 성공은 정동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어떻게 세계 대중의 사고방식과 어색하지 않게 조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 정말로 정동들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일까? 오히려 정동은 에너지와도 같이 끊임없이 흐르면서 섞임과 중첩 안에서 복잡하게 작동하는 변별 불가능한 과정 아닐까. 정동이 변별 가능하고 또 구획 가능하다는 공간적 상상력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일까.

본 논문은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정동을 변별 가능한 것으로 논하는 지배적인 인식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인식론이 수행하는 역할과 현실적인 효과에 대해서 논한다. 이어서 혐오가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정동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을 탐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제안한다. 이 다른 시선 안에서 혐오는 다양한 정동들과 일종의 계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어서 우리는 혐오의 계열을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 양식인 인지 자본주의의 주목경제의 관계 안에서 탐구한다. 이 과정을 통해 모멸과 수치의 문화, 행복 산업 및 긍정사회와 포르노적 쾌락, 그리고 그에 조응하는 향락의 언어를 혐오의 계열을

2) 스투어트 월튼, 이희재 역, 『인간다움의 조건』, 사이언스북스, 2012.

조건짓는 맥락으로 주목할 것이다.

## 2. 정동의 관리와 인클로저

정동을 변별 가능하고 구분 가능한 어떤 것으로 다루면서 정동이 뇌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정한 자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인식론은 “마음과 세상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꾸준한 프로젝트”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꾸준한 프로젝트’는 오늘날 우울증을 병리화하고 행복을 지상 최대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하는 ‘행복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다.<sup>3)</sup> 다시 한 번 <인사이드아웃>으로 돌아가보자. 결국 슬픔의 가치는 기쁨이가 주도하는 ‘리얼리’의 세계에 건강하게 포섭될 때 ‘긍정’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정동을 구획할 수 있다는 지배적인 생각과 이를 통해 가능해지는 ‘정동의 관리’<sup>4)</sup> 과정을 ‘정동의 인클로저’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렇게 명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로 무엇보다 이것이 정동에 ‘테두리’

---

3) 윌리엄 데이비스, 황성원 역, 『행복산업』, 동녘, 2015, 12쪽. “신경과학자들은 행복과 불행이 뇌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각인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한편, 노래 부르거나 녹색식물이 어째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신경학적 설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자극을 받으면 ‘더없는 행복’을 촉발하는 부위와 ‘고통 경감 스위치’처럼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의 정확한 부위를 찾아냈다고 주장한다. 이 실험적인 ‘정량화된 자아’ 운동 안에서, 개인이 일기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맞춤형 ‘기분 추적’을 수행하는 혁신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영역의 통계적 증거가 쌓이면서 ‘행복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이 모든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장했고, 어떤 지역과 생활양식, 고용 형태 혹은 소비 양식이 최고의 정신적 건강을 발생시키는지 세심한 그림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윌리엄 데이비스, 앞의 책, 10쪽.)

4)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여성문학연구』 제 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7~22쪽. 문강형준의 논문은 재난의 시대 ‘정치적 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서로 ‘투쟁’하는 정동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 본 논문의 기획은 「재난 시대의 정동」의 초고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를 쳐서 공간화하는 상상력으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런 ‘테두리치기’가 명백하게 자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기획 안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 효과가, 자본주의 초창기 공유지에 테두리를 쳤던 인클로저 운동이 토지 점유를 통해 행사했던 효과와 마찬가지로, 인간들 사이의 ‘감정적 공유지’를 해체하고 ‘원자화된 개인’을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감정적인 공유지가 해체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공감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 타자를 끊임없는 경쟁과 적대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동료의 조직과 삶을 위한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형성이 점차로 불가능해진다는 것과 연결된다. 네 번째로 정동을 구획하여 자원화, 그리고 자본화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하는 정동의 인클로저는 1960년대 말 경제 성장률 저하와 격렬했던 민중 봉기에 대응하는 부르주아의 계급 투쟁 과정에서 자본주의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새로운 시초축적’의 한 요소로 활용되었다. 정보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 자본주의의 출현<sup>6)</sup>은 에바 일루즈와 윌리엄 데이비스 등이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의 심리에 대한 관여, 즉 정동의 관리와 함께 진행된 것이다.<sup>7)</sup> 한국에서 새로운 시초축적이 요청되었던 최근의 위기는 IMF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구성된 정동인 우리 시대의 특수한 혐오 역시, IMF 이후 닥쳐 온 새로운 시초축적의 과정 안에서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8)</sup>

5) 자본주의 이행기에 ‘인클로저’가 어떻게 농업 공동체를 파괴하고 민중을 도시 빈민으로 전락시켰는가와 그에 저항했던 민중봉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김민철 역, 『켈리번과 마녀』, 갈무리, 2011, 44~192쪽 참고.

6)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2011.

7)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2011; 윌리엄 데이비스, 위의 글.

8) IMF 이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화되기 시작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유연한 노동력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영원처럼 유연한 노동력이었던 여성들이었다. 1990년대 공적 가부장제(실비아 월비)의 진전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생산의 영역으로 ‘초대’되었던 여성들은 경제 위기 및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에 따라 또다시 전통적인 생산의 영역에서 거세당하기 시작한다. 1990년대 말부터 특정한 형태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를 ‘혐오의 시대’로 규정하고 혐오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동으로 다루는 어떤 논의들이 이런 정동의 인클로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구분하여 독자성을 부여하고 있는 이 ‘혐오’를 정동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비평적 개념’으로서 축소시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특수한 지형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혐오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가 기대고 있는 개인의 파편화를 주조하고, 강화하며, 지속시키는 내용이자 형식으로서 ‘혐오’를 논의하여 왔으며, 혐오는 우리 시대의 모순을 타계하고 체제의 외부를 상상하기 위해서 배척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정동으로 다루어왔다. 이는 긍정되어야 하는 정동이 있다는 가정으로 이어졌고, 그랬을 때 분노나 애도, 슬픔과 같은 정동들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런 정동의 ‘유별’은 담론적으로 어떤 효과를 생산할 것인가? 혹은 무엇에 공모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동의 인클로저에 동참하지 않는 방식으로 혐오를 다루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혐오를 구체화시키려고 한다.

첫째, 우리 시대를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는 비평적 개념으로서의 ‘혐오’는 실제적인 행위와 상호작용하면서 물질성을 띄게 된 정동을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적 혐오란 혐오발화, 혐오표현, 혹은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로 이어진 정동이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집단화되면서 사회적인 효과를 생산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혐오를 감정이나 정서가 아닌, 육체라는 물질성과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자 및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사유되어야 하

---

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여성혐오’는 이런 새로운 시초축적의 국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 이후 여성의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진 것과 여성혐오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호, 문화과학사, 2015 참고.

는 흐름이자 에너지로서 ‘정동(affect)’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sup>9)</sup>

그리고 그런 정동으로서의 혐오는 다양한 정동들의 복합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이 혐오를 구체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다. 혐오는 여러 정동들이 서로 뭉쳤다 분리되었다 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특정한 발화와 행위, 그리고 효과로 연결된다. 예컨대 혐오의 언설들은 타자에게 쉽게 모멸감을 주는 문화<sup>10)</sup>에서 자양분을 얻고, 즐거움이 적극적인 행위로서 정언 명령이 된 시대(“더 즐겨라!Enjoy More!”)<sup>11)</sup>에 ‘재미(개드립)’라는 형식을 빌어 타자에게 치명적인 수치심(‘똥꼬총’과 같은 모멸감을 주는 언설이 반복될 때, 피해자는 수치심을 내면화한다)을 강요함으로써 그 효과를 지속시킨다. 그리고 슬픔이나 우울같은 정동들이 자신의 언어를 찾지 못하고 개인화, 병리화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들처럼 슬픔과 우울에 빠져있는 자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sup>12)</sup> 그러므로 우리는 ‘혐오’를 다양한 정동들의 계열 안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대의 정치적 의미망으로서의 정동들은 서로 파악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개념화된 상태로 경/절합하며, 또 계열을 이루어 계열 끼리의 경/절합을 이어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에는 분명한 성질이 있다. 더러운 것, 부패한 것, 위험한 것 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하고 깨끗한 신체적 경계를 보존하기 위한 “순전히 생리적 기원에서 나온 혐오”<sup>13)</sup>는 “전염이라는 신비적

9) Michael Hardt, “Forward: What Affects Are Good For”, Patricia Ticineto Clough and Jean Halley(eds.), *The Affective Turn*, Duke University Press, 2007, pp.ix-x.

10)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지성사, 2014.

11) 윌리엄 데이비스에 따르면 “나이키의 ‘도전하라Just do it’나 맥도날드의 ‘더 많이 즐기라Enjoy more’ 같은 슬로건은 196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의 윤리를 보여주는 명령어들”이다. 그는 슬라보예 지젝을 인용하면서 “즐거움은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훨씬 엄중한 의무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시카고학파가 정류 규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후로는 기업 수익성 역시 즐거움과 동격이 되었다.” (윌리엄 데이비스, 앞의 글, 203쪽.)

12)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의 폭식 투쟁이나 ‘세월어묵’과 같은 혐오행위들을 생각해 보라.

생각과 수수성, 불멸성, 비동물성-우리가 아는 인간 삶의 선상에 놓여있지 않은-에 대한 불가능한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sup>14)</sup>이며, 이런 경향으로부터 매우 적극적인 사회적 정동으로 진화한다. 혐오는 “신비적 사고의 경향을 지니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편견과 연결되어”<sup>15)</sup>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혐오’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정동의 성격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생리적인 기원을 가진 정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회적인 정동으로서 작동하면서 일종의 ‘비평적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혐오와 절합하여 계열을 이루는 정동들 및 그에 경합하는 정동들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 3. 우리 시대의 혐오: 혐오하는 스놉의 등장<sup>16)</sup>

우리 시대의 혐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체들에게 등장하게 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공백의 문제, 불안정한 정체성과 기댈 수 있는 견고한 공동체적 감각의 상실과 관계되어 있는 정동이다. 1987년 체제의 경제적 실패(자본주의는 풍요를 약속했지만 지속적으로 빈곤이 양산되고, 사회 구성원들은 점차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와 정치적 실패(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약속했지만 계급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먹고사니즘이 최고의 화두가 된 세계 속에서 개인이 끊임없이 탈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가 중첩된 자리에서 곁을 잃고 관계를 상실한 채로, 그렇게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간(間)-주체적인 욕망 속에서 왜곡된 형태로 인정을 갈구하는 ‘혐오하는 스놉’이 등장하게 된다.

13) 스투어트 월턴, 앞의 글, 22쪽.

14)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36쪽.

15) 위의 책, 233쪽.

16) 본 논문의 3절과 4절은 손희정, 『혐오의 시대: 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제 32호, 여이연, 2015 중 5절과 6절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지금 여기의 ‘스놉’이란, IMF를 지나면서 경제적, 사회적, 생물학적 생존주의가 유일한 존재양식<sup>17)</sup>이 된 시대에 “왜곡된 인정투쟁의 공간에서 살아남는 것”에 몰두하는 인간형이다. 그리고 이 인정투쟁의 장은 “도덕적 존엄성이 훼손되고 파괴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과시가 지배”하는 곳이다.<sup>18)</sup> 스놉은 인정을 위한 인정을 갈구하며 정치적 입장에서부터 일상의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구성 요소들을 촘촘하게 자기 스타일화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스놉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정치적 실패 뿐 아니라 1990년대 소비사회를 거치면서 이미지가 되어버린 상품과 함께 인간 자체를 이미지화해버리는 문화적 조건이 놓여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혐오란 냉전 시대의 반공주의나 산업화 시대의 발전주의가 선보였던 것과 같은 강력하고 절대적인 적대가 제거된 시대에 어떤 집단적 정체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타자화의 정동인 셈이며, 매우 적극적인 ‘주체화의 열정’을 반영하고 있는 정동인 셈이다.<sup>19)</sup>

그러나 혐오는 우리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게 된 새롭거나 낯선 정동은 아니다. 그것은 문명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 속에서 생명체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감정적 기제다. 스투어트 월턴은 ‘인간다움을 조건짓는’ 대표적인 정동 중 하나로 혐오를 꼽으면서 “혐오의 촉발이 침, 콧물, 가래, 귀지, 오줌, 똥, 정액, 피(특히 생리혈) 같은 고약한 신체 분비물이나 썩거나 끓는 생물학적 과정의 구체적인 예에 뿌리를 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sup>20)</sup>을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혐오는 이처럼 신체의 안전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습들에 스며들어 있는 정동’으로서 일종의 ‘진화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sup>21)</sup>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원한 것들을 위반하

17)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41~42쪽.

18) 위의 책, 42쪽.

19) 자세한 내용은 손희정, 앞의 글을 참고.

20) 스투어트 월턴, 앞의 책, 141쪽.

21) 이에 관해서는 마사 너스바움이 『혐오와 수치심』에서 혐오의 인지적 구성 요소들을

지 않도록 경고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감정”<sup>22)</sup>으로 건강하고 단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동이다. 그야말로 혐오는 ‘주체’와 ‘공동체’의 경계를 흠어 놓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거부의 대상이 되는 비체(abject, 卑/非體)적인 것들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한 문화권 안에서 “비체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에 더 가깝다. 그것 자체가 지정된 한계나 장소나 규칙들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가 어중간하고 모호한 혼합물인 까닭이다.”<sup>23)</sup> 그런 의미에서 혐오는 물리적인 위협과도 일치하지 않는다.<sup>24)</sup>

이처럼 실질적이거나 물질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한 존재라기보다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 불쾌한 것,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로 여겨지는 것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랬을 때 복고적 반동주의를 통해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이들이 여성, 성소수자, 중북,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호남 등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럽다. “차별에는 최소 세 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차별이란 어떤 이를 타자화함으로써 그것을 공유하는 이와 동일화하는 행위”라고 할 때<sup>25)</sup>, 혐오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연구한 성과들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 (마사 너스바움, 앞의 책, 166~185쪽.)

22) 너스바움이 앞의 책 142쪽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수주의적 생명윤리학자 레온 카스의 입장. 이는 혐오를 옹호하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를 통해 혐오가 해 온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역할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카스의 말을 재인용하는 것은 카스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할에 주목하기 위해서다.

23)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5쪽.

24) 너스바움은 독버섯을 예로 들면서 혐오는 “인지된 위협”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위험한 대상은 그것을 섭취하지만 않는다면 같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혐오스러운 대상은 그렇지 않다. 또한 독을 제거한 독버섯처럼 위협이 제거되면 위험한 대상은 먹을 수 있지만, 혐오스러운 대상은 모든 위협이 제거된다 할 지라도 여전히 혐오스러운 것으로 남아 있다. 사람들이 살균시킨 바퀴벌레가루를 먹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말이다. (...) 혐오는 자신의 몸 안과 밖이라는 경계와 관련이 있다. 혐오는 문제가 있는 물질이 자신의 체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길 때 생긴다. (...) 혐오스러운 것은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마사 너스바움, 위의 글, 168쪽.) 즉, 물리적인 위협 자체가 혐오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동일화’하고 있는 제 3의 대상이란 한국 사회에서 ‘취약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주류 혹은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과편화되고 데이터화 되었으면서도 강력한 향수로서 거대서사가 여전히 의식의 심층에 존재할 때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미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점이다. 일베의 여성이나 이방인 혐오에 대한 분석들은 혐오의 정동이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26)</sup> 그러나 사실 혐오에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역시 작동한다. 예컨대 마사 너스바움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혐오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견뎌내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보다 잘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과 몸의 퇴화에 불안을 느끼기 마련이다. 혐오는 자신의 몸이 퇴화하고 있으며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할 때 생기는 불안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늦든 이르든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감정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sup>27)</sup> 그러니까 자본주의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무능이 드러나고 생명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으며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 ‘폐소공포증’<sup>28)</sup>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저열함이나 불가능성을 나로부터 떼어내 비체화시켜 혐오한다. 그렇게 나와 분리함으로써 지금 나의 이상향을 견딜 수 있는 안전막을 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나 이방인에 대한 혐오란 그들의 사회적 삶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혹은 무임승차로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25) 우에도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42쪽.  
 26) 천관율, 『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 『시사IN』 367호, 2014.09.2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1>(2015년 11월 8일 검색).  
 27) 마사 너스바움, 앞의 책, 180쪽.  
 28) 무엇보다 이 ‘폐소공포증’은 역사가 종언을 고했으며 자본주의와 그 정치적 판본인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지배적인 인식론으로부터 비롯된다. 역사는 완성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데, 세계는 ‘지옥’이라니. 그야말로 숨막히는 삶 아닌가.

하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주체에게 “나 역시 저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혐오란 명백하게 실체 없는 환상과 이미지에 근거하고 있다.

#### 4. 혐오의 계열 하나: 주목경제, 조리돌림, 그리고 수치심

그렇다면 이런 혐오는 어떤 스펙트럼 안에서 움직이면서 다른 정동들과 연합하고 또 경합하는가? 이제 우리는 ‘혐오의 계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열은 우리 시대의 ‘낡았지만 새로운 형태’로 혐오가 등장하게 된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주목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하드웨어’적 토대는 ‘소비 자본주의의 극단에서 발생하는 주목 경쟁’이라는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으로 연결되며, 이런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혐오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수치심의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박권일은 일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일베란 “이해관계, 권력이지, 이념성 같은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독특한 양태를 보이는 공간”이라는 점을 관찰하면서 그는 그 “공간의 구체적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이어간다.

그것은 바로 주목경제가 아닐까 한다. (... 주목 경제란) 간단히 말해 타인의 주목을 추구하는 활동이 최우선 순위를 점하게 되는 경향성 또는 사회 환경을 가리킨다. 주목경제 개념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지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의 ‘정보 풍요’ 착상, 즉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관심이라는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착안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정보를 소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수용자의 관심을 소비하는 것이다. 정보가 넘쳐날수록 관심은 부족해진다.” 주목경제는 주목 경쟁attention struggle을 통해 성립한

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담백하게 점잖게 말하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관심을 받기 위해 발언 수위나 행동이 점점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형태가 된다. 심지어 주목을 받기 위해 일부러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다. (...) 주목경제에서 희소 자원은 타인의 관심이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정보 초과잉 사회’에서 타인의 관심은 주체의 효능감을 강하게 자극하고 또 충족시킨다. 일베가 진보를 공격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그쪽이 더 많은 관심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9)</sup>

정치적 입장과 태도조차 스타일이 되어버린 시대에, 진보를 자신의 스타일로 달고 있는 ‘진보적 스놉’의 다른 쪽에 ‘반동적 스놉’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다만 박권일은 이런 주목 경쟁과 인정투쟁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하는데, 사실 인정투쟁과 주목의 획득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주목 경쟁이 배타적인 정체성 담론에 의해 반동적으로 전유된 인정투쟁과 만나 등장하게 된 폭력적인 문화적 실천이 바로 스놉의 인터넷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조리돌림(shaming)’이다. 이 ‘조리돌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혐오와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동인 모멸과 수치심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조리돌림’은 21세기의 혐오증자들이 선보이는 대중적이고 집단적인 ‘명예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적인 망신주기’, ‘만성적인 혐오발화’와 다르지 않은 형식을 띠고 있는데, 수치심이란 ‘혐오-만성적인 망신주기-수치심’의 삼각형을 이루면서 혐오의 ‘괴력’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혐오와 수치심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혐오를 통해 그것이 개인의 경계이건 공동체의 경계이건, 경계를 공고히 하고 스스로를 해체와 분열, 탈각 혹은 몰락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고자

29) 박권일, 공백을 들여다보는 어떤 방식: 넷우익이라는 ‘보편 증상’, 『모멘텀』 vol.01, 자음과모음, 2014, 51~52쪽.

하는 충동을 가진 이들은 “혐오의 속성들(점액성, 악취, 점착성, 부패, 불결함)을 반복적이고 변함없이” 그 정체성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대상들에게 결부시켜 왔다. “특권을 지닌 집단들은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보다 우월한 인간적 지위를 명백히 하려고 한 것이다.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불기족천민, 하층 계급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오물로 더럽혀진 존재로 상상되었다.”<sup>30)</sup> 한국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된장녀/분당선 대변녀/개똥녀/김치녀/보슬아치’ 등의 오물이나 특정 냄새, 성기에 대한 은유 등으로 치환되는 것이나, 개신교 우파에서 끊임없이 남성 동성애자들을 짬방이나 난교, 식(食)으로 표현되는 특정 취향, AIDS 등의 점액질에 뒤섞인 오염된 이미지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똥꼬충’과 같은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는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 등은 명백히 이런 혐오의 수사학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혐오의 수사학은 소수자들을 인간의 영역에서 탈각시켜 인간과 동물 사이의 모호한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모멸과 수치심이라는 또 다른 정동에 호소하게 된다.

혐오 발화와 같은 차별 선동 행위들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자리는 이렇게 모멸 및 수치심과 만나게 될 때이다. 이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들로 하여금 혐오의 수사를 내면화하고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수치심이란 권력을 가진 자나 전통적 공동체가 도덕이라는 잣대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길들임에 있어서 그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되어 온 방법론이자 가장 파괴적인 방법론 중 하나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혐오와 수치심을 가장 잘 연결시키고 있는 반동적 복고주의 블록의 한 예인 개신교 우파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들은 수치심의 정동을 활용하기 위해 대중이 선고하는 명예형인 집단적 혐오발화를 수행한다. 그것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수치심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모욕은 모멸감 주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모멸감은 기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그 목표

---

30) 너스바움, 앞의 책, 201쪽.

로 한다. 모멸감은 부당하다는 인식과 억울함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성격을 띤다. 그리하여 모멸감은 분노의 정동을 생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노하라!’라는 요청이 보여주는 것처럼, 분노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다. 모멸이 수치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개신교 우파가 혐오 발화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만성적인 ‘망신주기’는 점차로 개인으로 하여금 타인이 강요하는 수치심에 굴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결점이 있고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원죄와 수치의 수사가 지니고 있는 자기 파괴적 속성의 효과에 익숙한 개신교 우파는 스스로 ‘포비아’라는 ‘만성적인 질병’이 되고자 한다. 이때 우리는 수치심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중요한 정동이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수치심이란 개인을 그 어느 때보다도 무기력하고 허무주의적으로 만들며, 그렇게 스스로 쓰레기로서 머물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시 주목 경쟁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이처럼 혐오발화의 효과는 수치심과 만날 때 더 강화되고, 그것은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상징자본을 극대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컨대 개신교 우파의 혐오발화가 일종의 ‘조리돌림’인 것처럼, 일베에서의 여성 혐오, 호남 혐오, 이방인 혐오가 재/생산 되는 방식 역시 소수자들에 대한 ‘조리돌림’이다. 또 한편으로 트위터와 같은 SNS 공간에서 벌어지는 ‘조리돌림’ 역시 내용만 다를 뿐 형식은 마찬가지다. 알티RT와 조롱, ‘힙’해 보이는 코멘트 등을 통해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그런 자극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쏠리는 주목 자본을 축적한다. 이런 디지털 시대의 ‘조리돌림’은 과거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주기(public shaming)’이 그랬던 것처럼 배타적인 공동체성을 구축하고 그 공동체의 내부 규범을 강화시킨다. 인터넷은 우리 시대의 광장이며, 결과 공동체를 잃은 우리가 광대한 네트의 바다인 인터넷을 경유해 사람들과 접속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꾸려 결속감을 확인하고 주목과 인정을 축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이기까지 하다. 그랬을 때 SNS의 지배적인 정치성이 진보적이거나 혹은 반동적 복고

주의에 적대하는 자유주의적 성격을 띠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올 것인가?

##### 5. 혐오의 계열 둘: 행복 산업과 한없이 투명한 재미

혐오와 절합된 수치심, 그리고 그 둘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 환경과 형식에 대한 고려는 또 다른 정동에 대해 질문하도록 요청한다. 한없이 가볍고 투명한 즐거움과 재미의 문제가 그것이다. 혐오는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즐거움과 재미는 혐오를 정당화시킨다. 그리고 이는 매체의 문제를 포함하고 넘어서면서 신자유주의 사회의 ‘정동의 관리’와 연결되어 있다. 윤보라는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여성 혐오 담론의 강박성과 병리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유머’와 ‘드립’이라는 가장 막강하고도 안전한 방패 덕분이다. 여성 혐오 담론에 대한 우려와 조작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머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차단당한다. 일베 현상에 사회가 몸살을 앓았던 당시, 많은 사람이 일베의 논리를 ‘루저들의 배설’로만 치부했다. 그러나 일베가 정확하게 뒤집은 명제가 이것이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바로 배설을 통한 유머와 드립이며, 이는 비단 일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김치녀에 대한 판타지를 계속해서 구축하려면 조작과 자작을 피할 수 없다. 이 사이의 불완전성과 모순을 채워주는 것이 **향락의 언어**다. (강조는 인용자.) 이도 저도 안 되면 ‘드립’이고, 이 드립은 재미가 있는 한 온라인 공간 안에서 절대 각각되지 않는다. 현재의 무차별적 여성 혐오 담론의 핵심은 그 내용에 있을 뿐 아니라 내용이 거주하고 있는 표면, 즉 쾌락의 언어에도 존재한다. 이제 유머와 ‘드립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주체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권력을 분배하는 최종 심급이 되었다.<sup>31)</sup>



다만 그는 이런 흥미로운 통찰 속에서 “왜 웃음이 최종 심급이 되었”는지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모른다”라고 덧붙인다. 웃음은 왜 최종 심급이 되었을까?

‘유머’와 ‘드립력’이 넷상에서 힘을 가지는 방식은 일베가 배태되어 나왔던 디씨갤러리에서 유저가 상징자본을 획득하는 구조와 같다. 디씨에서 중요한 것은 게시판에서 유저가 어떤 강력한 ‘떡밥’을 던지느냐에 있지, 오프라인에서 그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와는 무관하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인류학’이라는 이름으로 ‘디씨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했던 이길호는 디씨가 공동체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보유 자본에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sup>32)</sup> 디씨갤 안에서 갤러에게 특정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개념글’을 생산하며 구성원들에게 ‘선물’을 증여하는 현재적인 활동일 뿐이다. 심지어 그가 가까운 과거에 갤에서 어떤 생산활동을 했었으며, 그에 따라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었는지조차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의 어떤 상징자본의 축적도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sup>33)</sup> 그래서 디씨는 포털사이트의 ‘카페’와는 달리 유저들 사이의 친목이나 위계 형성을 ‘노예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디씨갤’에는 디씨인사이드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직접 배정하는 갤 관리자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감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의 맥락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세계의 위계를 구성하는 규칙은 디씨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개념글’은 반

31) 윤보라, 「김치녀와 별거벗은 임금님들」,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43~44쪽.

32) 이길호, 『우리는 디씨』, 이매진, 2012.

33) 이길호는 이것이 디씨가 새로운 유저(뉴비)들을 영입함으로써 ‘여성 없이 갤러를 재생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떡밥’의 성질이 ‘갤러의 재생산’보다는 인정투쟁과 주목경쟁을 통한 ‘자기 재생산’에 더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드시 ‘재미’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초 커뮤니티의 하위문화가 띄고 있는 내적 특수성의 동질성이다. 즉, 온전히 ‘지금 여기서 내가 던지는 떡밥’으로만 인정투쟁과 주목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떡밥’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외설적인 재미는 떡밥에 힘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런 특수성은 이제 하위문화를 초과하여 일상세계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기실 문제적인 것으로 주목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은 ‘재미’ 자체가 아니라, 재미의 성격의 변화일 터다. 한 사회에서 재미와 웃음이 사람을 죽여서라도 막아야할 정도로 위험한 것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sup>34)</sup>은 바로 그러한 웃음의 전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르러 재미와 웃음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재미와 웃음은 가장 필요면서도 가장 익숙한 상품이 되었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다.

68혁명에 대응하는 부르주아의 계급혁명<sup>35)</sup>이었던 정보혁명<sup>36)</sup>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정보화, 데이터화 되는 시대가 열렸다. 한병철은 이처럼 “정보의 자유라는 맥락에서 투명성이 강력히 요구”되면서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통제사회로 연결되는 우리 시대를 “투명사회”라고 규정한다. 이런 투명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긍정사회’가 출현한다. 신자유주의는 “긍정성을 위해 부정성을 해체해 가는 중”<sup>36)</sup>이며, 여기서 긍정성이란 다름과 낯섦, 차이, 타자의 저항, 거리(혹은 간격) 등 사유와 비평, 토론, 진리에의 탐구를 조직하는 부정성 negativity의 소멸을 의미한다. 긍정사회에서는 단순한 것, 즉각적인 것, 명명백백한 것, 별거벗겨진 채로 노출되어 버린 것, 그러니까 포르노적인 것들이 주목을 획득하며 따라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 반대로 숨겨진 것, 사유를 요청하는 것, 그리하여 시간과 정성을 요하는 것들은 무가치한 것

34) 움베르트 에코, 이윤기 역, 『장미의 이름』 1, 2, 열린책들, 2002.

35) 조정환, 앞의 글.

36) 한병철, 『투명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13쪽.

으로 폐기된다. 삶 자체가 포르노가 되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요청이다. 이런 시대를 장악하는 “투명한 언어는 형식적 언어, 즉 어떤 애매모호함도 없는 순전히 기계적이고 조작적인 언어”<sup>37)</sup>다. 이런 사회에서 웃음은 ‘풍자’로부터가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나온다. 여성, 외국인, 장애인, ‘보통’이지 않은 몸 등이 웃음거리가 된다. 소수자와 타자에 대한 비하는 사유의 간극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공유되고 소비되기 때문이다. 떡밥이 되는 재미의 표현들은 이렇게 포르노가 되어 버린 재미의 언어를 보여준다. 이는 어떤 ‘어려움’도 수반하지 않는데, 그런 부정성을 내포하거나 요구하는 것들은 이내 ‘설명충’이나 ‘진지충’이 되어 버릴 뿐이다. 그런 것들은 ‘노잼’이다.

이제 질문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 일차적으로 재미의 성격이 문제였다면, 그 다음 우리가 질문할 것은 재미 자체의 문제다. 왜 이렇게 한없이 알파한 ‘재미’일까? ‘재미’의 가치는 어째서 이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 혐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스스로를 ‘네티즌’이라고 소개했던 김호는 2000년대 초반 남초 게시판들의 유머코드는 “엽기”였는데, 이것이 2000년대 후반에는 “막장/루저 정서”로 전환되었고, 2010년대가 되어서는 “혐오”가 되었다고 분석한다.<sup>38)</sup> 2010년대에 혐오가 재미라는 형식을 얻은 것처럼, ‘떡밥’으로서의 재미는 혐오라는 내용을 얻었던 셈이다. 이렇게 재미와 혐오는 서로가 서로를 상관적으로 구성해 왔다. 그것은 혐오가 ‘지배적인 정동’이 되어 왔던 만큼이나 ‘재미’와 연결되어 있는 ‘즐거움’과 ‘명량함’, ‘행복’이 어떻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왔는가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병철은 투명사회에 대한 논의에서 “행복Glück이라는 단어는 빈틈에서 유래한 것이다. (...) 빈틈의 부정성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행복이 없는 사회”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행복이

37) 한병철, 앞의 글, 15쪽.

38) 김호, 2015년 10월 5일 진행된 제 3회 SNU 인권주간 인권토크쇼 <혐오표현과 인권>에서.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행복과 명랑함을 지상과제로 추구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데이비스는 우리 시대에 “행복은 더 이상 돈을 버는 중차대한 사업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장식품”이나 “죽치고 앉아서 자기가 먹을 빵을 직접 구울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이나 끌어들이는 뉴에이지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행복은 계산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으며, 항상 시킬 수 있는 실체로 이제는 전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요새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자본주의의 미래는 스트레스와 비참함, 질병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안락함과 행복, 건강으로 채우는 우리의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sup>39)</sup>

행복과학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최전방에 끌려 나오게 되면 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 기업 컨설턴트와 개인 교습의 맥락에 놓인 행복은 (...) 갑자기 어떤 전략과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더 많은 화폐를 보상으로 토해낼 투입물이자 자원으로 재현되고 있다. 화폐는 그만큼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벤담과 제본스의 심리적 전체가 뒤집혀 일정량의 행복이 어느 정도의 화폐를 만들어 낸다는 식이 되어버린 셈이다. (...) 이 분야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사이자 컨설턴트인 폴 잭이라는 이름의 신경과학자는 행복을 ‘근육’처럼 생각하라고 말한다. 필요할 때 100퍼센트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것이다. 이 대단히 개인화된 의제에는 빈곤과 실패의 원인을 개인으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sup>40)</sup>

이처럼 빈곤과 실패의 원인을 개인으로 돌리는 사회에서 우리가 처한 모순의 답을 구조에서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그저 ‘남탓충’이 된다. 우리 시대의 정언명령인 ‘욕망’과 함께 행복은 모든 것을 개인화하는 세계의 인식론에 기여한다.

39) 윌리엄 데이비스, 황성원 역, 『행복산업』, 동녘, 2015, 8~9쪽.

40) 위의 책, 132~133쪽.

그러나 그렇게 행복이 강조되는 시대이지만, 행복이야말로 가장 “연약한 감정”<sup>41)</sup>이다. 더군다나 윌리엄스 역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복이 지상과제가 된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양산해 놓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삶의 조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나의 성취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되고 가치부여 될 때, 내가 그 경쟁의 승자이건 패자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깊은 피로와 우울에 사로잡히게 된다. 행복이 지상과제가 된 것은 오히려 우리가 피로와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우울은 적극적인 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국가적 재난의 피해자들이 집단적인 우울증자가 되어 상실로부터의 회복을 거부하고 그곳에 머무르자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빠르게 밟고 넘어서야 할 ‘유족층’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웃음’이라는 만병통치약이 통하지 않는 그들의 고통은 (다시 한번 등장하지만) ‘노잼’이다.

그러나 한없이 투명한 포르노적 인간들이 그렇게 행복과, 그 행복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에 매진하려고 해도, 행복이라는 연약한 감정은 지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좌절이나 반대항으로 등장하여 지배하는 정동은 바로 “허무와 냉소, 그리고 명량한 체념”<sup>42)</sup>일 것이다.

## 6. 나오는 말

혐오를 드러냄으로써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세력’이 사회 전면에 부상하면서 그들과 맞서려는 움직임 역시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종의 유행처럼 혐오에 대한 논의들이 기획되고 있다. 물론 이는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대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넘쳐나는 말들 속에서 진지한

41) 스튜워드 윌튼, 앞의 책, 514쪽.

42) 싸올로 비르노, 김상운 역, 『다중』, 갈무리, 2004, 143~151쪽.

논의는 공회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우리는 다양한 결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변화시키는 ‘폭력’을 혐오라는 하나의 내용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혐오를 둘러싼 담론의 공회전을 넘어서 이 논의를 앞으로 진전시켜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 구체적인 행위와 다른 정동들과의 관계 안에서 ‘혐오’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정동은 긍정적이고 어떤 정동은 부정적이라는 식의 신자유주의의 ‘정동의 인클로저’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나의 정동에서 가능성을 찾으려 하는 논의들은 긍정적 정동과 부정적 정동에 대해서 논의하는 태도를 견지하곤 한다. 예컨대 혐오와 수치심은 부정적이고 애도와 분노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식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기실 본 논문 역시 그런 논의 자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동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현실을 진단/분석하고 형성되어 있는 담론에 개입함에 있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민하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어떤 특정한 정동의 부정성과 긍정성은 특정한 ‘동기’ 안에서만 말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동 자체의 부정성과 긍정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동들과 연결된 행위의 효과들을 탐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동에 대한 논의를 정동 그 자체보다는 그를 둘러싼 다양한 네트워크로 확장시켜야 한다. 부족함이 많지만 본고가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찬호, 『모멸감』, 문학과지성사, 2014, 23~307쪽.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7~103쪽.

윤보라, 「김치녀와 별거벗은 임금님들」,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11~45쪽.

이길호, 『우리는 디씨』, 이매진, 2012, 18~284쪽.  
 조정환, 『인지자본주의』, 갈무리, 2011, 55~91쪽.  
 한병철, 『투명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4, 13~102쪽.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139~624쪽.  
 빼올로 비르노, 김상운 역, 『다중』, 갈무리, 2004, 125~163쪽.  
 스텐터트 윌턴, 이희재 역, 『인간다움의 조건』, 사이언스북스, 2012, 9~515쪽.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김민철 역, 『캘리번과 마녀』, 갈무리, 2011, 44~192쪽.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2011, 1~238쪽.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30~44쪽.  
 윌리엄 데이비스, 황성원 역, 『행복산업』, 동녘, 2015, 6~206쪽.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1~94쪽.  
 찰스 다윈, 김홍표 역,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 지만지, 2014, 3~434쪽.  
 Patricia Ticineto Clough and Jean Halley(eds.), *The Affective Turn*, Duke University Press, 2007, pp.ix-xiii.

2. 논문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 『여성문학연구』 제 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41~67쪽.  
 박권일, 공백을 들여다보는 어떤 방식: 네티즌이라는 ‘보편 증상’, 『모멘텀』 vol.01, 자음과모음, 2014, 15~62쪽.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호, 문화과학사, 2015, 14~47쪽.  
 손희정, 「혐오의 시대: 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제 32호, 여이연, 2015, 12~42쪽.  
 천관율, 「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 『시사IN』 367호, 2014.09.2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1> (2015년 11월 8일 검색).

## Abstract

### On the Enclosure of the Affect:

- How to Speculate on the Disgust in the Era of Neo-liberalism

Sohn, Hee-Jeong

This is the era of *affects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capital and the state. To this end, affects have been treated and discussed as distinguishable from each other. Such epistemology has been formed in a “steady projects that assu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d and the world can be explored mathematically,” which is connected to the 'happiness industry' excessively pathologizing depression and worshipping happiness as the most powerful ideology in the service of the capital. In this paper, such a management process of affects is defined as *enclosure of the affects*. First, this is made possible from the imagination of spatialization by building ‘fence’ among the affects, secondly, this process of ‘fencing’ is obviously capitalist and liberalist project, and thirdly, the effect is dismantling the ‘emotional commons’ between people. In addition, it has been one of the ‘new primitive accumulation’ methodologies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capitalism of the late 60’s. It seems to be around IMF(1997) that the latest new primitive accumulation has started in South Korea. To deal with the disgust, not being entrapped by the enclosure of affects, we need to understand disgust as the affiliation of various affects. For example, *disgust* gets nourishment from the culture of *contempt* and continues its effects in the form of *fun* forcing *shame* to others when the *pleasure*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mission to accomplish. Only when we approach to the disgust as a whole, we can



avoid serving the affects management of our days.

Key words : Affect, Affects Management, Enclosure of Affects, Disgust, Shame, Contempt, Happiness, Fun, Happiness Industry, Attention Economy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